

제1 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담화의 요건 중 ‘응결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응결성은 담화에 포함된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함을 뜻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발화하지 않는 ‘생략’이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략은 담화의 요건 중 하나인 ‘정보성’과 관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네, 생소하게 들리시죠? 오늘 저는 이러한 정보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보성이란 담화의 내용이 수용자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담화일수록 흥미를 느끼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정보만을 전달하는 담화일 경우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청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배치하여 ㉠ 담화의 정보성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담화 상황 속에서 청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된 정보를 ‘구정보’, 청자가 새롭게 알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신정보’라 합니다. 구정보와 신정보는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에 포함되어 실현됩니다. 구정보와 신정보가 주어로 실현될 경우 구정보는 주로 보조사 ‘은/는’이 표지로 결합하고 신정보는 주격 조사 ‘이/가’가 표지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강아지를 좋아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동생이 강아지를 좋아해.”라고 말할 경우 신정보인 ‘동생’은 주격 조사 ‘이’가 표지로서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무엇을 좋아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동생은 강아지를 좋아해.”라고 말할 경우 구정보인 ‘동생’에 보조사 ‘은’이 표지로서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질문에 대해 “강아지.”라고 답한다면 구정보인 ‘동생’과 ‘좋아해’를 생략함으로써 목적어에 나타난 신정보인 ‘강아지’에 초점을 맞춰 담화의 응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화의 정보성에 대해 구정보와 신정보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발표를 들은 여러분이 일상의 담화에서 정보성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청자를 배려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발표 내용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제재를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도입]
- 청중과 함께 공유한 경험을 환기하고, 발표의 화제가 정보성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 [전개]
- 정보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정보성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②
 - 정보를 구정보와 신정보로 나누어 제시하고, 예시를 통해 구정보와 신정보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설명해야겠어. ③
 - 구정보와 신정보의 특징을 나열하고, 각각의 정보를 생략했을 때의 장점을 분석해 강조해야겠어. ④
- [정리]
-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해 온 추가 자료를 모둠별로 분석해 볼까요?
- [추가 자료]
- 지은: 안녕, 너 점심은 먹고 왔어?
- 하준: ㉠ 응, 나 먹고 왔어.
- 지은: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고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먹고 왔네?
- 하준: ㉡ 어머니께서 데려다주셔서 점심은 먹고 왔지.
- 지은: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 하준: ㉢ 시계가 멈춰서 부탁하려고, 시침 좀 한번 볼래?
- 지은: 상태가 이상하네. ㉣ 많이 휘어진 것 같아.
- 하준: 그럼 어디에 가서 고쳐야 할까?
- 지은: ㉤ 학교 앞 수리점에 가서 고치면 될 거야.

학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구정보가 포함된 목적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② ㉡은 보조사를 결합해서 구정보를 생략하지 않고 주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③ ㉢은 격 조사를 결합하여 신정보를 주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④ ㉣은 구정보가 포함된 주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⑤ ㉤은 부사어에서 신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6] 다음은 도서관 학생들의 토의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도서관장: 이번 겨울 방학에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서 선생님께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선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1: 우리 학교 도서관은 책이 꽂혀 있는 서가와 개인 학습 공간으로만 되어 있어 독서 토론과 같은 소통 활동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 2: 맞아요. 제 친구들은 공부할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불편 **[A]** 하다고 했고, 토론 활동을 할 때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 편하게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학생 3: 그렇다면 기존의 학습 공간을 나누어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학생 1: 벽으로 공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학생 2: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벽으로 공간을 나누면 실내가 답답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장: 실내가 답답하지 않게 구획할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학생 3: 그럼 벽 대신에 접이식 문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도서관장: 접이식 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학생 3: 여러 개의 문짝이 접히면서 옆으로 밀리는 형태의 문입니다. 평소에는 접어 두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펼쳐서 벽처럼 공간을 나누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장: 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공간을 나눌 때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학생 2: 도서관 전체 조명이 지나치게 밝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안과 전문의가 너무 밝은 빛은 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학생 1: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 전체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학습 공간에는 이용자가 직접 조명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조명을 비치하면 어떨까요? **[B]**

학생 3: 좋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도서관에 가 보니 학습 공간은 하얀빛 조명, 토론 공간은 주황빛 조명이라 공간마다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도 공간 특색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접이식 문으로 공간을 나누고, 공간별 특색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자는 의견이시군요. 도서관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학생 3: [가]

도서관장: 소음과 관련한 문제까지 고려해 주셨네요.

4. 위 토의에 나타난 ‘도서관장’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의 배경과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토의자가 제시한 의견을 긍정하며 토의를 이어 가고 있다.
- ③ 토의자의 의견 중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 ④ 토의자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묻고 있다.
- ⑤ 토의자에게 질문하여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말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주변 상황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재진술하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6. <보기>는 ‘학생 3’이 토의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 관련 설문 조사 중 일부

1.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새로 필요한 공간은?

토론 공간 (55%)	검색 공간 (25%)	...
-------------	-------------	-----

2. 도서관 내부 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 (45%)	소음 문제 해소 (35%)	적절한 온도 유지(10%)	...
------------------	----------------	----------------	-----

[자료 2] 인터넷에서 ‘흡음재의 소재’를 검색하여 정리한 메모

- 섬유 소재: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 내구성이 약한 편.
- 금속 소재: 심미적 효과가 뛰어난. 잘 망가지지 않음.
- 나무 소재: 내구성이 강한 편. 시공 기간이 충분히 필요함.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공간을 구성하는 시공 소재를 결정할 때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도서관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간의 분위기는 소재의 질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운 금속 소재와 달리 섬유 소재나 나무 소재를 사용하면 이용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① 소음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므로 나무 소재 흡음재를 사용하면 소음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도서관 시설이 낙후되었으니 금속 소재 흡음재를 사용해 미관을 개선하면 독서 토론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 ③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섬유 소재를 흡음재로 활용하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 ④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소재의 흡음재를 설치한 학습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독서와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⑤ 새롭게 마련할 토론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를 설치하되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해 나무 소재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7. <보기>의 대화를 바탕으로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이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순서대로 제시된 각각의 단어가 발음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를 의미합니다. 가령, 선생님이 ‘좋아서’, ‘물난리’, ‘막일’을 제시하였다면 비밀번호는 122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 ‘좋아서’는 탈락 1회, ‘물난리’는 교체 2회, ‘막일’은 첨가 1회, 교체 1회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이번에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232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단어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자물쇠가 열릴까요?

학생: 네, 선생님. [A]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 자물쇠가 열리겠군요.



- ① 물약, 되찾다, 꽃잎
- ② 물약, 짓밟히다, 식용유
- ③ 발농사, 셋노랑다, 식용유
- ④ 발농사, 짓밟히다, 엿보다
- ⑤ 홀이불, 셋노랑다, 엿보다

8.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에서는 특정 대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선어말 어미나 조사를 사용하여 높였습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는데, 바로 ‘-습(슬)-/-줍(줄)-/-습(슬)-’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서 ‘에게’에 대응하여 높임의 의미로 ‘께’가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는 ‘익그에/의그에’에 대응하여 높임의 의미로 ‘스귀’가 쓰였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유정 체언 중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결합할 때는 ‘익/의’가 쓰인 것과 달리, 무정 체언이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과 결합할 때에는 ‘스’이 쓰였습니다. 그럼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해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 내 아래브터 (㉠) 이런 마를 묻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法力(법력)이 저그시니
[스승님의 법력이 적으시니]

- | | ㉠ | ㉡ | ㉢ |
|---|-------|------|------|
| ① | 부터의그에 | 듣즈븍며 | 스승넝 |
| ② | 부터의그에 | 드르며 | 스승니의 |
| ③ | 부텃기 | 듣즈븍며 | 스승넝 |
| ④ | 부텃기 | 듣즈븍며 | 스승니의 |
| ⑤ | 부텃기 | 드르며 | 스승넝 |

9.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예를 ㉠ ~ ㉣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어근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어간에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명사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단어는 새롭게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된다. 이와 달리 명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 용언이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한다. 이때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은 기존의 서술성을 유지하며 사전에는 기본형의 형태로 등재된다.

- 육상 종목 중 ㉠ 던지기가 가장 재미있어.
- 종이를 오릴 때 조심히 ㉡ 가위질을 하렴.
- 그 일을 그렇게 흐지부지 ㉢ 처리함은 부당해.
- 나는 동생과 함께 전시회를 ㉣ 관람하기로 약속했어.
- 그 아이는 장난이 심해서 친구들에게 ㉤ 장난꾸러기로 불려.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0.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어의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시제는 각각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된다.

〈 자 료 〉

진서: 내가 ㉠ 말한 식당 가 봤어?
우민: 응. 거기서 점심을 ㉡ 먹었는데, 내가 ㉢ 먹은 라면이 맛있더라.
진서: 그랬구나. 나도 오늘 거기 가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으러 ㉣ 갈 생각에 정말 ㉤ 설렌다.

- ① ㉠: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관형사형 어미 ‘-은’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1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7세기 철학자 홉스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목적한** 후 ‘이성을 통해 욕망을 다스려 신이 부여한 목적인 선을 실현하는 인간’이라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인간관을 의심하게 된다. 그에게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혁명 이후, 자연 현상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물질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과학적 발견들에 영향을 받아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운동이라는 기계론적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정신 활동도 신체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인과, 공간에서 위치가 변화한 결과가 있듯 홉스는 생명체의 물리적, 정신적 변화를 모두 운동으로 설명한다. 먼저 그는 생명체의 물리적 변화를 ‘생명적 운동’과 ‘의지적 운동’으로 구분한다. 생명적 운동은 생명의 보존을 위한 운동으로 생명체의 정신 활동이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나며 호흡, 순환, 배설 등처럼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의지적 운동은 생명체가 말하거나 걷는 등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의지적 운동에는 생명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신 활동이 개입된다.

홉스는 생명체의 정신적 변화는 정신 활동이 연쇄되는 운동 과정, 즉 ‘정신의 담론’으로 보았다. 그는 생명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 기관으로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생명체 내부에 심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각’이라 보고, 감각이 내부에 약하게 남은 것을 ‘상상’이라고 본다. 이때 상상은 생명체에게 욕망, 혐오와 같은 ‘정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생명체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욕망하고 해로운 것을 혐오하는데, 이러한 정념이 숙고 끝에 ‘의지’로 이어지면 의지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홉스는 상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유 연상에 머무는 경우를 ‘규제되지 않은 정신의 담론’으로, 상상이 정념으로 이어져 의지적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규제된 정신의 담론’으로 구분했다.

규제된 정신의 담론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정신 활동이다. 이는 예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이나 수단을 추적하는 것으로 동물에게도 나타난다. 두 번째는 원인에서 결과를 예상하는 정신 활동이다. 이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나타난다. 홉스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정신 활동을 통해 인간은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인간만이 정신의 담론을 언어로 표현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 보존을 향한 욕망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인지는 지능적 사고를 갖춘 인간만이 가능한 앎의 행위 등으로 여겨져 왔다. 철학자 헤일스는 현대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적 시스템의 등장에 주목하며 인지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지를 의미와 연결되는 맥락 안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지의 주체를 ‘인지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의식에 기반한 정신 활동은 인지의 전제가 아니며 인지가 나타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헤일스는 인지는 각 인지자가 가진 고유한 물질적 과정을 거치며 인지와 물질적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물질적 과정은 인간의 신체나 비인간 생명체의 몸체, 심지어 기술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회로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을 통해 인지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작용이다. 또 그는 인지의 양상을 의식적 차원과 비의식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의식적 차원의 인지는 ‘㉣**핵심 의식**’과 ‘㉤**확장 의식**’으로 구분된다. 그에 따르면, 핵심 의식은 인지자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그가 처한 현재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것으로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포유동물, 문어 등의 일부 수생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 확장 의식은 핵심 의식을 토대로 하며 인지자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속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를 이용해 눈앞에 없는 대상까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상징적 추론,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유도하는 추상적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장 의식은 인간과 일부 영장류들이 가지고 있다. 인지자는 확장 의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며 복잡한 사회적 의미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헤일스는 비의식적 차원의 인지로 ‘비의식적 인지’를 제시한다. 비의식적 인지란 의식의 개입 없이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비의식적 인지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수준에서 작동해 의식이 개입하지 않지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는 비의식적 인지가 의식적 차원의 인지보다 정보를 훨씬 더 빨리 처리해 복잡한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에 ㉥**기반해** 추론을 끌어낸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의식을 지닌 인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 차원의 인지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비의식적 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적 시스템은 비의식적 인지만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시스템의 인지는 물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 뇌가 감당하기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해 빠르게 결과를 산출한다.

헤일스는 인간의 인지가 더 이상 고립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적 시스템과 얽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체 내부에서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지자와도 상호 작용하며 정보를 처리하기도 한다. 헤일스에게 오늘날 인간은 확장된 인지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지자 가운데 하나이다.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철학적 견해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개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철학적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철학적 개념을 나열하고 개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철학적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철학적 견해를 언급하며 그 견해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12. (가)에 제시된 홉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존재이다.
 - ② 인간은 운동이라는 기계론적 물리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인간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의지적 운동’이다.
 - ④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 보존을 향한 욕망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 ⑤ 인간이 ‘감각’한 것이 내부에 남아 ‘상상’으로 이어져 자유 연상에 머물러야 ‘생명적 운동’이 일어난다.

1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언어를 이용한 상징적 추론 행위가 포함된 것이다.
 - ② ㉡은 인간을 비롯한 일부 수생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것이다.
 - ③ ㉡은 인지자가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은 ㉡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인지자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은 인지자의 의식적 차원의, ㉡은 인지자의 비의식적 차원의 인지이다.

14.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홉스’와 ‘헤일스’의 입장에서 ㉠과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인간의 정신을 신체와 구별되는 독립적 실체로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학생 1: ㉠ 인간의 정신 활동은 물질적인 신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간의 정신과 몸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2: ㉡ 인간의 정신 활동은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므로 외부 세계와 구분된 신체 내에서 일정한 규칙 없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① 홉스는 ㉠에 동의하지 않고 ㉡에 동의하겠군.
- ② 헤일스는 ㉠에 동의하고 ㉡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홉스는 ㉠에 동의하지 않고 헤일스는 ㉡에 동의하겠군.
- ④ 홉스와 헤일스는 모두, ㉠과 ㉡ 모두에 동의하겠군.
- ⑤ 홉스와 헤일스는 모두, ㉠과 ㉡ 모두에 동의하지 않겠군.

15.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조사 요원 A 씨는 탐지견 B와 수하물에 숨겨진 폭발물을 탐지하는 일을 한다. A 씨는 B에게 특정 물질의 냄새를 기억시키며 후각에만 집중하도록 훈련시켰다. B가 특정 물질의 냄새를 기억하는 데 성공하면 A 씨에게 보상으로 간식을 받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A 씨는 훈련이 B에게 미칠 모든 가능성을 고민해 ‘탐지견 10주 훈련 과정’을 고안했다. B는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집중하여 주변을 살살이 탐지하다 특정 냄새를 맡으면 바로 옆드려 A 씨에게 알린다. 최근 A 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C도 이용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폭발물 엑스레이 영상을 학습한 C가 수하물 탐지 중에 의심되는 수하물을 알리면 A 씨는 B와 해당 수하물을 탐지한다. A 씨는 C를 활용한 후부터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일의 능률이 올랐다.

- ① B가 훈련 중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가)의 홉스는 예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을 추적한 결과로 보겠군.
- ② B가 현장을 살살이 탐지하다 특정 냄새를 맡으면 바로 옆드린 것에 대해 (가)의 홉스는 생명체의 상상이 정념에서 의지로 이어진 결과로 보겠군.
- ③ A 씨가 B에게 미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탐지견 10주 훈련 과정’을 고안한 것에 대해 (가)의 홉스는 원인에서 결과를 예상하는 정신 활동의 결과로 보겠군.
- ④ A 씨가 C를 활용한 후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나)의 헤일스는 인간이 다른 인지자와 엮힌 결과로 보겠군.
- ⑤ C가 엑스레이 영상을 학습한 후 의심되는 수하물을 알린 것에 대해 (나)의 헤일스는 기술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차원의 인지가 작동한 것으로 보겠군.

16. ㉠ ~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이라는 의미이다.
 - ② ㉡: 자신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이라는 의미이다.
 - ③ ㉢: 인지의 ‘일정한 한도를 정해야’라는 의미이다.
 - ④ ㉣: 이 패턴에 ‘바탕이나 토대를 두어’라는 의미이다.
 - ⑤ ㉤: 감당하기에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은’이라는 의미이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이 맞물리는 영역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반인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축물 규모는 법적으로 규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개발 밀도의 상한을 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법」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맞닿아야 하는 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대지 내의 건축물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접도 요건의 기준이 되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규정된 ‘소요 너비’인 4m는 확보되어야 한다. 대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지표면의 굴곡을 반영한 실제 표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지형의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도로가 규정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가령 너비 3m인 도로 양쪽이 대지와 접해 있다면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2m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접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 통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는 건축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너비가 모두 8m 미만인 두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대지의 모퉁이를 일정 부분 잘라내 도로에 편입하는데, 이를 가각정리라고 한다. 가각정리에 의한 건축선 지정은 도로의 교차각과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차하는 두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 이상이거나 두 도로의 교차각이 120° 이상이면 가각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선이 확정되면 대지면적을 최종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수평면에 투영하여 계산한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이 대지를 평면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건폐율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간인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와 통풍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한 건축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입체적 규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지만, ㉠ 용적률 산정에 적용되는 연면적은 이와 다르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등이 제외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는 건축물의 최대 건축면적과 층수를 산정해 볼 수 있다. 대지면적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건폐율을 곱하면 최대 건축면적이 산출되고, 대지면적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용적률을 곱하면 최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산출된다. 최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최대 건축면적으로 나눈 값은 결국 최대 용적률을 최대 건폐율로 나눈 값이 되는데 각 층의 바닥면적을 최대 건축면적과 같게 할 경우의 층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주는 허용된 최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을 조절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

17.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주된 용도와 개발 밀도의 상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 ②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이 모두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 ③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④ 경사지의 대지면적은 지형의 경사를 반영해 실제 표면적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 ⑤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대지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18.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물에서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간의 면적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 ②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 ③ 건축물의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 ④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비해 대지면적이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 ⑤ 건축주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조절하여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평면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19.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 ②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③ 접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새로 지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 ④ 두 도로의 교차각이 120° 이상이 되면 가각정리에 의해 새로 지정된다.
- ⑤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의 매입 당시 토지 평면도(2024년)]

[갑의 토지 운용 현황(2026년 현재)]

- 토지 A에는 건축물을 건축 완료하였고, 토지 B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임.
- 토지 A, 토지 B의 최대 건폐율은 50%, 최대 용적률은 150%임.
- 건축물은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을 적용함.
- 토지 B에 건축될 건축물의 모든 층은 바닥면적과 최대 건축면적이 동일함.

(단, 위에서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 A는 도로의 소요 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이 조정되었겠군.
- ② 토지 A는 가각정리가 적용되어 2024년 매입 당시의 면적에 비해 최종 대지면적은 줄어들었겠군.
- ③ 토지 B의 최종 대지면적이 늘어날수록 최대 건축면적도 늘어나겠군.
- ④ 토지 B의 최종 대지면적이 줄어들수록 건축 예정인 건축물의 층수도 줄어들겠군.
- ⑤ 토지 B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좁게 설계할수록 건축물의 전체 층수를 늘릴 수 있겠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인 안구는 특유의 전기적 성질을 지닌다. 이러한 성질에서 비롯된 전기 신호를 눈 주위 피부에 붙인 전극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안전도(EOG)이다. 이 기술은 ㉠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전기 신호를 기록할 수 있어 안구 운동을 살펴는 데 효과적이며, 망막의 기능을 평가하는 임상 검사에도 활용된다.

안구는 앞쪽이 양극이고 뒤쪽이 음극인 전기 쌍극자처럼 작동한다. 각막이 있는 앞쪽의 전위와 망막이 있는 뒤쪽의 전위 사이에는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 전위차를 정지 전위라고 한다. 정지 전위는 망막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 겹의 세포층인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으로 인해 형성된다.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이므로 이온이 수송되면 세포층의 한쪽 면에 전하가 치우쳐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은 눈을 감아도 계속되므로 정지 전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조명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정지 전위의 크기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며 안구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안전도를 활용한 검사를 하려면 눈 좌우의 피부에 각각 전극을 붙이는데, 전기 쌍극자처럼 작동하는 안구의 특성으로 인해 두 전극 사이에도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전위차를 오른쪽 전극의 전위에서 왼쪽 전극의 전위를 뺀 값으로 정하면, 안구가 정면을 향할 때는 오른쪽 전극의 전위와 왼쪽 전극의 전위가 동일하여 전위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안구가 오른쪽으로 돌 때는 양극인 각막이 오른쪽 전극에 가까워져 그 전극의 전위가 높아지므로 전위차가 양수가 되고,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전극의 전위가 높아져 전위차가 음수가 된다. 즉 전위차의 부호는 회전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위차의 절댓값은 전위차의 크기를 나타낸다. 전위차의 크기는 측정 시점의 정지 전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정면 기준 좌우 각각 약 30° 이내에서는 안구의 회전 각도의 크기에도 비례한다. 따라서 정지 전위가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전위차의 부호와 크기로부터 각각 안구의 회전 방향과 각도를 알아내 안구 운동을 추적할 수 있다.

한편 정지 전위는 조명 조건이 암조건인지 명조건인지에 따라 변한다. 암조건이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지면 정지 전위가 점차 작아져 최소값에 이르고, 이후 명조건이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지면 정지 전위가 다시 커져 최대값에 도달한다. 이처럼 정지 전위가 달라지면 같은 각도에서 측정하더라도 전극 사이의 전위차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그 크기만으로는 회전 각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안구 운동을 정확히 추적하려면, 일정한 조명 조건에서 정지 전위가 안정될 만큼 안구를 충분히 적응시킨 뒤 측정 중에도 그 조명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조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정지 전위는 망막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빛에 노출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인해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이 더 활발해진다. 그러면 전하의 치우침이 커져 정지 전위가 커진다. 그러나 망막색소상피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온 수송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여 정지 전위가 정상 범위까지 커지지 못한다. 이때 명조건에서의 정지 전위 최대값을 암조건에서의 최소값으로 나눈 값을 아텐비라 하는데, 망막색소상피의 기능이 정상이면 대략 1.8 이상으로 나타난다. 아텐비가 그보다 낮으면 망막색소상피의 기능 저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진단의 보조 지표로 쓰인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안구는 전기 쌍극자처럼 작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정지 전위는 망막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 ③ 망막색소상피는 망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세포층이다.
- ④ 안전도는 안구의 전기 신호를 전극으로 기록하는 기술이다.
- ⑤ 안구의 방향이 정면을 향할 때 양쪽 전극의 전위는 동일하다.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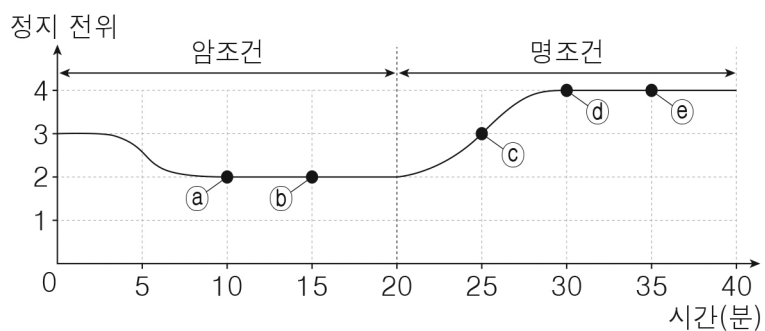
- ① 눈을 감으면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눈을 감으면 정지 전위가 안구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③ 눈을 감으면 안구의 회전 방향에 따라 각막의 양극이 음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 ④ 눈을 감더라도 안구가 회전하면 이온과 전하가 분리된 채 지속적으로 수송되기 때문이다.
- ⑤ 눈을 감더라도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은 계속되므로 정지 전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23. <보기>는 읽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자료]

- 피험자의 눈 좌우 피부에 각각 전극을 부착하여 안전도를 활용한 검사를 하는 가상의 상황임.
- 그래프는 조명 조건에 따라 측정된 피험자 안구의 정지 전위의 변화를 의미함.
- ㉠~㉡는 안구가 정면을 향한 상태를 기준으로 안구를 회전시켜 정지 전위의 크기를 파악한 시점임. 각 시점의 회전 방향과 각도는 그래프 아래에 제시함.



㉠ 오른쪽 20° ㉡ 오른쪽 10° ㉢ 오른쪽 20° ㉣ 오른쪽 20° ㉤ 왼쪽 20°

(단, 위에서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에서는 왼쪽 전극의 전위가 오른쪽 전극의 전위보다 높게 기록되었군.
- ㉢에서 측정된 정지 전위가 ㉡에서보다 높은 것은,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으로 인하여 전하의 치우침이 커졌기 때문이겠군.
- ㉢에서 측정된 정지 전위를 ㉡에서 측정된 정지 전위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볼 때, 망막색소상피의 기능 저하로 보기는 어렵겠군.
- ㉠가 ㉡보다 안구의 회전 각도가 크므로, 전극 사이 전위차의 크기는 ㉠에서가 ㉡에서보다 크겠군.
- ㉠가 ㉢보다 빛에 노출된 시간이 짧으므로, ㉣에서의 전극 사이 전위차의 크기는 ㉢에서보다 작겠군.

- [24 ~ 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사회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국가, 계층, 지역, 연령,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등장했다.

기후 정의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특히 자원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분배적 기후 정의와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절차적 기후 정의가 강조된다. 분배적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를 유발한 정도와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불공정에 주목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취약한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절차적 기후 정의는 기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이해 당사자들

의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정책 역시 이러한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은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환류로 이루어진다.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 과정은 순차적이지 않고 중첩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그 성과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와 환류는 의미 있는 절차이다.

정책 평가는 정책 집행을 통해 얻은 효과를 원래 의도했던 목표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평가의 결과가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환류이다. 따라서 환류는 자연스럽게 기존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정책 변동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정책 혁신이나 기존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정책 종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책 유지와 정책 승계인 경우가 많다. 이 둘은 기존 정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정책 유지가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 내용이나 예산 액수, 집행 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 내용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반면 정책 승계는 핵심이 되는 사업이나 담당 조직, 예산 편성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와 구별된다.

정책의 개선은 정책 평가의 결과가 반복적 환류를 거쳐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실제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는 폭염은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냉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부담을 가중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하절기 폭염 대비 정책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변동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정책 평가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정책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더위쉼터의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있지만 실제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구·군별로 폭염 취약 계층 및 무더위쉼터 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폭염 취약 계층이 가장 적은 ○○군이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고, 구·군별로 무더위쉼터의 수용 인원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 반면 정책 집행에서 실제 이용자인 취약 계층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 불편이나 야간 미운영 등 실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취약 계층의 개선 요구 사항은 많았지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A] 물론, 정책 변동으로 인해 예산과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금전적 가치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닌 정책의 경우, 다양한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더위쉼터 정책에 대한 환류를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정책을 바탕으로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기후 정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기후 정의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①
-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②

(나)와 관련하여,

- 정책 과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③
-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책 과정의 특징은 무엇일까? ④
- 정책 혁신이 만드는 새로운 정책의 종류는 무엇일까? ⑤

25.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논증하는 글의 관습은 서론에서 주장을 밝히고, 본론에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증하고, 결론에서 주장을 다시 강조하는 구조로 글을 쓰는 것이다. 이때 서론에서는 논제에서 언급된 개념이나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고, 본론에서는 이유와 근거뿐만 아니라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① 서론에서 폭염이 취약 계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한다.
- ② 본론에서 기존의 무더위쉼터 정책이 기후 정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③ 본론에서 실제 무더위쉼터 이용자들이 무더위쉼터별 수용 인원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설문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 ④ 본론에서 무더위쉼터 정책 변동으로 인해 예산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 ⑤ 결론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제시한다.

26.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기후 정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분배적 기후 정의의 핵심 가치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를 유발한 정도와 관계없이 기후 변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절차적 기후 정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기후 정책의 공정한 설계와 집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정책의 개선에 주목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정책 변동 유형에 따른 차이점에 주목하고, 정책 승계와 달리 정책 유지는 기존 정책의 목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정책 평가 방법 중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편익과 발생한 비용을 일련의 합리적 과정을 통해 측정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공공 정책을 평가할 때는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편익과 효과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 예를 들면 대기나 수질의 오염, 건강, 위생 또는 안전 등과 같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학회 논문 자료-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기후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공공 정책의 특성상 환경 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과 같은 비금전적 가치를 정책 효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평가에는 정책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됨을 제시하고 무더위쉼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후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평가의 주요 목적이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제시하고 무더위쉼터 정책으로 인해 얻은 편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과정을 이루는 절차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이 크다면 금전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28 ~ 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우리 동네 탐조 활동’에 참여하고 쓴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지에 기고하려 함.

[초고]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회 면접에서 불합격한 후, 면접에서의 실수가 계속 생각나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에 동아리에서 ‘새’를 주제로 한 수필집을 읽었다. “새를 관찰하는 탐조 활동은 아픈 기억을 잊게 해 주고, 작아진 내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라는 구절에 이끌려서, 시에서 주말마다 진행하는 ‘우리 동네 탐조 활동’에 참여 신청을 했다.

활동 날 아침, 시청 강당에서 소양 교육을 받았다. 큰 소리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강한 향기도 새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탐조 시에는 화려한 색의 복장이나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옷이나 냄새가 새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었는데, 탐조 과정에서 새들의 평화로운 삶을 존중하며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오 무렵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다리에서 탐조를 시작했다. 새들을 관찰하던 중, 갈색 머리와 회색 몸통에 긴 꼬지깃을 가진 고방오리 한 마리를 보았다.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먹이 잡기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최선을 다했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내 모습 같아서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고방오리는 실패는 이미 잊었다는 듯 묵묵히 자맥질에 집중하더니, 곧 먹이를 물어 올렸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여 끝내 목표를 이루어 낸 고방오리를 보니, 그동안 내가 과거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느라 또 다른 성취의 기회들을 놓쳐 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다.

오후에는 하천 근처 숲에서 탐조를 이어 갔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새들의 모습에 감각을 집중하자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다. 특히 굴뚝새, 흰목물떼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작은 새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맑은 울음소리로 숲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니 비록 학생회에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나도 언젠가 저 새들처럼 내게 어울리는 자리를 만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가 생겨났다.

처음 탐조 활동을 신청했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 때문에 겪는 피해를 탐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탐조 활동 참여를 권해 주고 싶다.

28.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탐조 활동에 참여한 계기를 책의 구절을 인용하며 서술하였다.
- ② 1문단에서는 탐조 활동이 갖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장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③ 2문단에서는 탐조 활동 시에 화려한 색의 복장이나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3문단에서는 탐조 과정에서 관찰한 고방오리의 외양을 묘사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⑤ 4문단에서는 하천 근처 숲에서 확인한 새들을 열거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29. 다음은 학생이 쓴 [일지]의 일부이다. ㉠ ~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시청 강당

- 탐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새의 습성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받음. ㉠

[정오 무렵]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다리

- 계속 먹이 잡기에 실패하고 있는 고방오리를 지켜봄. ㉡
- 고방오리가 자맥질에 집중하더니, 먹이를 잡는 것을 봄. ㉢

[오후] 하천 근처 숲

- 눈앞에 있는 새들의 모습에 감각을 집중함. ㉣
- 굴뚝새, 흰목물떼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작은 새들의 울음 소리가 들림. ㉤

- ① ㉠을 반영하여, 탐조 과정에서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 ② ㉡을 반영하여, 최선을 다했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고방오리의 모습이 유사해 보인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 ③ ㉢을 반영하여, 과거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동안의 자신에 대해 성찰한 바를 언급하였다.
- ④ ㉣을 반영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 ⑤ ㉤을 반영하여, 자신과 새들의 모습을 연결 지어 자신이 겪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제시하였다.

30. 다음은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친구의 조언을 반영한 글이다. 친구의 조언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구: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할 때 마지막 문단을 조금 고쳐 쓰면 좋을 것 같아. ㉠ 내용을 수정하고, ㉡을 구체화하면 좋겠어.”

6

[친구의 조언을 반영한 글]

처음 탐조 활동을 신청했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과거의 힘든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자신감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탐조 활동 참여를 권해 주고 싶다.

- | | ㉠ | ㉡ |
|---|-------------|------------------|
| ①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활동 참여를 권하고 싶은 대상 |
| ②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활동 참여를 위한 조건 |
| ③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활동 참여 방법 |
| ④ | 앞 문단과 중복되는 | 활동 참여를 권하고 싶은 대상 |
| ⑤ | 앞 문단과 중복되는 | 활동 참여 방법 |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없는 슬픔으로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즉시 염습을 하려 하나 소저의 혼명이 염습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므로 염습도 하지 못하였다. 이때 유모가 소저의 원정을 가지고 승상에 게 드리고 소저가 유언한 말을 낱낱이 아뢰었다. 승상이 들으시고 원정을 받아보는데 그 사연에 하였기를 여차여차하므로, 다 본 후에 기가 막혀 화를 참지 못하고 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소저의 혼명이 공중에서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은 죽이지 마시옵소서. 소녀가 비록 귀신이지만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윽고 정 부인이 방안에 앉았다가 밖으로 나가더니 입에서 피를 토하고 즉살당하고, 돌춘이 또한 즉살당하므로, 승상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집안사람들이 부인을 염습하여 선산에 안장하였으나 소저는 염습도 못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집안의 형세가 크게 무너져서 노복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 소저의 혼명이 밤마다 울면서 다니므로 동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사방으로 떠나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황제는 이적을 어사로 임명하고, 이적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유모를 만나 취연(유 소저)의 사연을 듣게 된다.

할미는 계속하여, 몸쓸 계모 정 부인이 밋게 여기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청주 땅 이 승상의 아들과 정혼하였던 말이며, 정 부인이 심욕(心慾)하여 소저를 죽이려고 비상이 든 밥, 비상이 든 소주를 먹이려 하다가 제 자식을 죽인 말이며, 그 후 노비 돌춘을 시켜 죽이려 하였는데 하늘이 감동하여 소저의 꿈에 현몽하게 함으로써 소저가 깨닫고 경애를 초인(招引)하여 제 방에 재우든 말이며, 그 후에 한림이 장가왔다가 동방화촉(洞房華燭) 좋은 밤에 만담정화도 다 못한 채 노비 돌춘이 이렇게이렇게 하여 한림이 소저를 소박하고 돌아간 말이며, 청백(淸白)같이 깨끗한 유소저가 누명을 면치 못하고 황천으로 돌아가 원혼이 된 말을 하고, 이어서

“염습을 하려 하니 신체가 움직이지 않고 처량한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울며 오니 자연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오 년 되었지만 매일 울며 다닙니다.”

라고 하니, 어사가 그 말을 듣고 유모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과연 한림이오니 원통한 적원(積怨)에 이 내 몸이 지쳤구나. 이러한 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죽어 마땅하도다!”

하고 하면서 슬프게 통곡하니, 유모 내외도 어사를 붙들고 통곡하였다. 어사가 울음을 그친 후에 죽고자 하나 내가 방금 어명을 받아가지고 상림의 어사로 내려왔으므로, 이제 소저의 신체를 가서 보고 함께 죽겠다고 하였다. 유모가 듣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다가 이날 밤에 초롱에 불을 붙여 들고서 소저의 방에 와서 어사를 문밖에 세워 놓고 유모가 들어가 울면서 말했다.

“소저야, 일어나라! 한림이 찾아 왔단다. 일어나서 살펴보라!”

소저의 혼명이 공중에서 울면서 말했다.

“유모는 어찌 망령된 말을 하나요. 한림이 나를 찾아 무엇을 하랴? 그러한 말쑼은 마시오.”

유모가 말했다.

“소저야, 내가 어찌 너를 대하고서 기망하겠는가! 분명히 문밖에 와 있으니 일어나서 대면해 보라.”

라고 하니, 소저가 말하기를,

“어떤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도리어 욕되게 하니, 그러한 말 하지 말고 돌아가소서.”

유모가 할 수 없어 어사를 데리고 돌아와 밤을 지냈다. 이튿날 어사가 상림 태수에게 글을 보내었는데, 태수가 받아 보니 그 편지에 ‘무슨 의논할 일이 있으니 죽림촌에 대령하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태수가 즉시 죽림촌으로 내려와 어사를 뵈었다. 어사가 먼저 민심을 물은 후에 말하기를,

“나의 전후사연이 이러이러하므로 그대를 불렀으니, 들어가 말하면 행여나 통할 듯하므로 한번 들어가서 말하여 보라.”

라고 하시니, 상림 태수가 분부를 듣고 소저의 문밖에 가서 여쭙었다.

“하관은 이곳의 태수이온데, 어사의 분부를 듣고 왔사옵니다. 어사는 청주 땅 이 한림으로 방금 어명을 받아 내려왔으니 들어오기를 청하여 대면하시옵소서.”

소저의 혼명이 유모를 불러 전갈하여 말하기를

“성주는 한 읍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도를 닦는 것만 할 것이지, 죽은 귀신을 대하여 노류장화(路柳牆花)를 대하듯 말합니까? 아무리 귀신인들 남녀가 유별한데 [A] 그러한 말쑼을 마시고 바빠 돌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정치하는 일이나 밝게 하시오!”

라고 하니 태수는 할 수 없어 돌아왔다. 어사가 민망하여 태수를 보내고 이 사연을 나라에 상소하니, 황제가 보시고 반겨하면서 말했다.

‘경의 전실 부인의 정성과 열심이 만고에 드물구나. 짐이 내려가서 경의 원정을 풀고 싶으나 행차하기 어려워 예관을 보내어 대행하니 원정을 풀고 수이 돌아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때 예관이 내려와 어사와 의논한 후에 소저의 방문 밖에 들어가 여쭙었다.

“나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 왔사오니, 한림을 대면하여 원정을 풀게 하옵소서!”

소저가 그제야 유모를 불러서 말하기를,

“나 같은 원정을 나라에 청영하고 예관을 보내어 마음속의 증오를 풀게 하니 내 비록 귀신이지만 어찌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겠는가!”

라고 말하므로, 어사 그제야 들어가 소저의 신체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말했다.

“불민한 내 몸 때문에 그대가 원정지귀(冤情之鬼)가 되었으므로 나도 함께 죽을 것이다. 누가 능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소. [B] 빙설 같은 그대 목숨 내 자신이 한심하고도 허망하다. 잡아 가오, 잡아 가오. 이 내 목숨 잡아 가오. 황천에 돌아가서 우리 둘이 서로 만나 백년동락하여 보세. 좌우를 살펴보니 방안에 온갖 등불이 그때 보던 그대로라. 슬픈 마음을 둘 데 없네.”

—작자 미상, 「취연전」—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안사람들은 승상의 말을 듣고 정 부인을 염습하지 못하였다.
- ② 소저는 어사가 밤에 초롱불을 들고 찾아오자 어사를 외면하며 슬프게 통곡했다.
- ③ 어사는 태수를 통해 소저와 만날 것을 기대하며 태수에게 죽림촌에 대령하라고 지시했다.
- ④ 태수는 자신이 어명을 받고 내려왔으니 소저에게 어사와 대면하라고 일렀다.
- ⑤ 황제는 자신의 원정을 풀기 위해서 예관을 보내니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라고 어사에게 명령했다.

32.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직책에 맞는 의무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훈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강조하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을 성찰하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며 언행을 질책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이 찾아온 이유를 헤아리며 요구를 수용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신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인정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을 책망하며 상대방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가정하여 올바른 태도를 조언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취연전」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물이 누명을 벗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누명을 쓰고 시련을 겪게 된 인물은 공동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비현실적 존재가 되지만, 조력자의 매개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과 소통한다. 이후 또 다른 조력자의 노력을 통해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인물은 자신의 불명예를 해소하게 된다.

- ① 동네 사람들이 유 소저의 혼명이 우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사방으로 떠나간 데에서, 공동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 존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어사가 할미에게서 계모 정 부인과 노비 돌춘에 의해 유 소저가 겪은 일을 듣게 되는 데에서, 인물이 누명을 쓰고 겪게 된 시련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유모가 유 소저에게 한림이 찾아왔으니 일어나서 살펴보라고 말하는 데에서, 조력자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매개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어사가 유 소저의 사연을 나라에 상소하여 황제가 보게 되는 데에서, 조력자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억울함이 알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유 소저가 자신이 비록 귀신이지만 어찌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겠냐고 말하는 데에서,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행여나 임이 올까 ㉠ 찻을 열고 바라보니
우리 입은 온데 없고 두견성(杜鵑聲)* 슬피 운다
너는 무슨 수심으로 저토록 슬피 우나
가뜩이 수심 중에 짝을 지어 울고 가니
공산(空山)이 어데 없어 여기 와서 울음 우나
밤중만 네 소리에 구곡간장(九曲肝腸) 다 녹는다
이내 마음 둘 데 없어 주사장명(呪辭長鳴)하리로다
세사는 금삼척(琴三尺)이오 생애는 주일배(酒一盃)라
아회야 술 부어라 매일 장취(長醉)하리로다
창전(窓前)의 덜 핀 술을 앵무배(鸚鵡杯)에 가득 부어
일이삼배(一二三盃) 먹은 후에 취흥(醉興)을 못 이기어
이삼경(二三更)에 못 든 잠을 사오경(四五更)에 겨우 들어
상사하던 우리 입을 꿈 가운데 상대하니
반갑기도 측량없고 **기쁘기도 측량없다**
섬섬옥수 서로 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이를 적에
네가 진정 혼이 왔나 네가 진정 살아 왔나
꿈이나 생시이려나 아마도 허사로다
좌불안석하는 중에 여취여광(如醉如狂)하는구나
기고일장(氣高一場) 잊었든가 어이 그리 무정하오
홍안(鴻雁)*조차 아니 오니 이내 소식 뉘 전하리
(중략)

황망히 일어나서 유정히 살펴보니
밤중이 적적하야 다만 촛불 희미하다
금침(衾枕)을 들쳐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들락날락 혼자 하니 없는 **임이** 있을쏘냐
생시만 여겼더니 생각하니 꿈이로다
내가 미쳐 이러한가 실성하야 이러한가
꿈이 정녕 허사인 줄 내 번연히 알건마는
가소롭고 그리는 마음 행여 오는가 하였더니
제가 정녕 왔으면 흔적이나 보겠지마는
지금에 아니 오니 이내 마음 산란하다
무정하다 청삽사리 구월 추풍 낙엽성에
네 무단히 짓었구나 잠든 나를 깨웠도다
몹쓸 년의 청삽사리 너는 무슨 용심(用心)으로
두 귀 잠잠 짓지 말라 천만당부하였더니
너조차 무정하야 상사몽을 깨우느냐
이번에는 처음이나 일후(日後)랑은 맹세하라
몽중상봉(夢中相逢) 백 번 말고 **생시 한 번 보고**지고
굽이굽이 **맺힌 수심** 언제나 풀쳐볼까

—작자 미상, 「단장이별곡(斷腸離別曲)」—

- * 두견성: 두견새가 우는 소리.
- * 만단정회: 온갖 생각과 감회.
- * 홍안: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

나는 **변방 고을에서** 죄를 짓고 **복역(服役)**하느라 천신만고를
끌고루 겪지 않은 것이 없었다. 활처럼 몸을 구부려 자는 밤이면
밤마다 망상이 생겨 온갖 잡념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번져
얼토당토않은 갖가지 일이 떠올랐다. 잡념은 이런 데까지 번졌다.
‘어찌해야 사면을 받아 돌아갈까?’, ‘돌아간다면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지?’, ‘가는 도중에는 무엇으로 건디나?’, ‘고향에 도착하여

문을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할까?’, ‘부모님과 죽은 마누라 무덤을 찾아가선 어떻게 하지?’,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보고 빙 둘러앉아서는 무슨 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채소는 어떻게 심으며, 농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잡념은 더더욱 작은 일에도 이르렀다.

‘어린 자식 놈들 서캐와 이는 내가 손수 빗질해서 잡고, 곰팡이 피고 물에 젖은 서책일랑 뜰에서 별에 말려야지.’

세상 사람들이 응당 해야 할 일체의 일들이 몽땅 가슴으로 빠짐없이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렇듯이 몸을 뒤척이다 보면 ㉠ 창은 흰히 밝아 오고, 일어나면 도무지 실현된 것이라곤 전혀 없이 위원군(渭原郡)에서 귀양살이하며 결식하는 멀쩡한 사내일 뿐이었다. ‘밤사이에 떠올랐던 생각은 어느 곳으로 돌아갔으며,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저도 모르는 새 절로 실소가 터져 나와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오늘 밤에도 새벽녘이면 찌그러진 초가집 속에서 다시 몇천 몇만 명의 사람이 다시 몇천 몇만 가지의 잡념을 일으켜 이 세계를 가득 메우겠지. 속으로는 이익을 챙길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명예를 거머쥘 생각을 하겠지. 귀한 몸이 되어 한 몸에 장군과 재상을 겸직할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어 재산이 왕공(王公)에 버금가리라는 생각을 하겠지.

(중략)

하지만 그 사람도 창이 흰하게 밝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도무지 실현된 것이라곤 전혀 없고, 가난한 자는 도로 가난한 자로 돌아오고, 천한 자는 천한 자로 돌아오며, 이가(李家)는 본래의 이가로 돌아오고, 장가(張家)는 도로 본래의 장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생에 쌓아 놓은 근기(根基)를 현세에 받아쓴다고들 한다. 조화옹(造化翁)은 목이 뻣뻣하여 눈곱만치도 인정을 봐주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을 한번 결정지어 놓은 다음에는 다시금 고쳐서 두 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법이란 아예 없다. 네놈이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하며, 요렇게 잔꾀를 부리고 저렇게 수단을 부려서 10만 8천 리를 근두운(筋斗雲)을 타고 날아다니는 손오공의神通한 기량을 발휘한다고 쳐 보자. 아무리 날뛰어도 부처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뚫고 나가도 분수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다. 도리 없이 오늘도 또 제 본분에 맞는 밥을 씹고, 제 본때에 어울리는 옷가지를 걸친다. 그러다가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 차사(差使)가 명부를 소지하고 이르면, 즉각 길에 올라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수천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상념을 뒤에다 남겨 두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게는 하고많은 숙원이 있지마는 채 생각조차 못했사오니 제발 기한을 늦춰 주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끝내 입 밖에 내지도 못한 채 말이다.

아! 이러한 행로가 정녕 인간이 필경 맛닥뜨릴 종착지다. 인생이 그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미리 짐을 꾸려 할 일을 줄이는 방법이다.

—노궁, 「상해(想解)」—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어미를 통해 대상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⑤ 직유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5.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두견’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깊어진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아희’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조되고 있는 자신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C]: 자신이 기다리는 대상과 소통할 방법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찾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청삽사리’에게 말을 건네며, 당부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는 외부 세계와 단절하게 되고, ㉡을 통해 글쓰이는 새로운 공간을 지향하게 된다.
- ② ㉠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을 통해 글쓰이는 주변의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 ③ ㉠을 통해 화자는 대상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고, ㉡을 통해 글쓰이는 시간의 경과를 확인하게 된다.
- ④ ㉠을 통해 화자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을 통해 글쓰이는 타인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 ⑤ ㉠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을 통해 글쓰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된다.

37.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궁의 「상해」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 생각이 어떻게 보편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 위원군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밤마다 떠오르는 온갖 잡념들을 풀어놓는다. 특히 ㉡ 아이의 이를 잡아 주고 젖은 서책을 말리는 등 평범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대목이 인상 깊었다. 나아가 작가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던 시선을 외부로 확장하여, ㉢ 이익과 명예와 같은 세속적 욕망이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생각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 이러한 욕망들이 결국 인간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 죽음과 마주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며 글을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서 꿈이나 상상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나’의 심리를 투영하는 기능을 한다. 꿈이나 상상을 통해 현실과 상반된 상황을 마주한 ‘나’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와 변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의 ‘나’는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나)의 ‘나’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① (가)의 ‘생시’에 ‘한 번 보고’ 싶다며 ‘맺힌 수심’을 풀지 못하는 것을 통해 내적 고뇌가 심화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저승 차사’를 만나면 ‘수만 가지 상념을’ ‘남겨 두고’ ‘따라’ 가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이내 마음 둘 데 없’다는 것과 (나)의 ‘변방 고을에서’ ‘복역’한다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금침을 들쳐’ 봐도 ‘임’이 없다는 것과 (나)의 ‘도무지 실현된 것이라곤 전혀 없’다는 것을 통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처지를 자각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가)의 ‘상사하던 우리 임을’ 만나 ‘기쁘기도 측량없다’는 것과 (나)의 ‘제 본때에 어울리는 옷가지를 걸친다’는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던 그가 사변을 치르고 나서는 아주 판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었다.

무엇이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건 그의 변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 후의 그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회사의 주의 삼분의 일이 그의 것이라는 말은 뜬 소문이라 쳐도, 회사가 그의 돈을 사채로 얻어 쓰고 있는 것과 또 사원의 기개가 만 환 이만 환씩 일 할 변을 그에게서 쓰고 있는 것만으로 보아도 그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 “김 선생. 이번에 집사람이 해산을 했는데…….”

대개는, 다들 자리를 비우고 나간 점심시간을 타서 그의 책상머리로 다가와서는 그의 귀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조용조용히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안경을 쓱 벗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어서 안경을 닦으며 상대방의 얼굴은 보지도 않는 채

㉡ “네. 글썄 그런 닥의 사정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구요. 얼마 필요하시죠?” 하고 어린애가 아들이나 딸이나 따위는 인사조로도 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만 환은 있어야겠는데.”

“네.”

그는 서랍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등사로 된 차용증을 한 장 꺼내어 앞으로 밀어 놓는 것이다.

㉢ “가만 이젠? 저 어떻게 회사 돈을 좀 가불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상대방은 차용은 차용이되 될 수만 있다면 회사 돈을 가불해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우선 그러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가 내놓은 종이에에는 분명히 김철 귀하(貴下)라고 박혔으니 좀 주춤하는 것이다.

㉣ “네. 그래요. 그럼 사장님의 도장을 받아다 주십시오.”

그는 서랍에서 또 한 장 먼저 것과 같은 크기의 종이를 꺼내어서 좀 전에 것과 가지런히 놓는다.

“사장님의 도장이야…….”

그러면 또 앞에 선 친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채를 쓰고 있는 회사인데 사원에게 가불까지 척척 해 줄 까닭이 없다는 것은 딴 동료들이 이미 당한 경우로 미루어 뻔한 노릇인 것이다.

㉤ “그럼 김 선생님의 것을 한 달만 주슈.”

“이자는 일 할입니다.”

그는 썩 결상 뒷등에 기대앉으며 얼굴을 돌려 저만치 창밖의 하늘을 내다보는 것이다.

“지독한 자식이야.”

“눈사람이지 눈사람.”

“자식은 통 옷을 줄을 몰라.”

“피가 쏹쏹 열었던 말이야.”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안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직접 그런 소리를 그가 자기 귀로 들으면 그야말로 그로서는 극히 희귀한 미소를 빙긋이 입가에 띄우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김철은 회사 동료의 결혼 축의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돈을 내지 않아 다른 사원들에게 비난을 듣게 되고 이후 전쟁 때 겪었던 일을 떠올린다.

그가 아내와 어린것 둘을 데리고 분명히 지정한 곳에 약속한 시간에 갔을 때에는 이미 회사의 피난 트럭은 떠난 뒤였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 들어가려는데 수위 할아버지네 식구가 왔다. 그도 역시 피난 트럭을 놓친 것이었다.

“알겠어요 김 선생.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수위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김철을 쳐다보았다.

“알다니요?”

“아. 어제 누군가가 하던 말이 정말이었군요. 나는 설마 그럴 리야 하고 그래도 믿었었지요. 교약한 인심들 같으니.”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 글썄 이것 보. 트럭이 아무래도 좁을 테니까 약속 시간보다는 한 두어 시간 일찍 떠나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김 선생네나 우리처럼 고지식하게 믿고 있던 축들은 못 끼운 셈이죠.”

“설마 그럴 리야 있겠어요. 무슨 착오겠지요.”

“하. 글썄 나도 어제는 곧이 듣지를 았앗다니까요 윈.”

“……?”

그래도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어린것들을 끌고 눈길을 걸어서 피난을 해야 했었다.

부산에 닿자 회사 부산 지점으로 찾아갔다. 먼저 내려온 사원들이 모여 있는 숙소는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리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대문 밖에서 그대로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거 참 안됐는데. 그러니 이 통에 어떻거나 그 참.”

그저 그런 뜬 소리들뿐이었다. 그는 그 적산집 대문 앞의 돌층계를 자칫하면 헛디딜 뻔했다. 눈이 자꾸만 뿌연게 흐려지는 것

이었다.

수위 할아버지의 말이 귓속에서 되살아왔다.

그가 지계를 내려놓은 곳이 바로 그 돌층계 밑이었다. 어느 동료의 부인인지는 몰라도 뚱뚱한 그 부인이 던지다시피하는 백환 짜리 두장을 받아 들고 얼른 돌아서고 말았다.

아편 장사를 했을 게라고도 했다. 아니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훔쳐다 팔았으리라고도 했다.

또, 휘발유를 빼어 팔았다고 했다.

그가 돈을 모은 데 대하여서는 사원들 사이에 구구한 설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 사원들이 추측하는 이야기들은 다 틀렸고 또 다 맞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무엇이고 닥치는 대로 했다. 노동을 했다. 그것으로 넘마 장사를 했다. 미군 부대에서 **훔쳐 나오는 물건을 도매로** 맡아 **팔**았다. 한동안 휘발유가 고갈되었을 때 한 몫을 단단히 보았다. 흑인들을 상대로 아편 장사도 했다. 일본을 드나들며 **밀수**를 했다.

돈은 눈사람처럼 붙어 갔다.

그는 어느 선에서 모든 일에서 딱 ㉔ 손을 끊었다. 이번엔 남보다 먼저 서울로 왔다. 돌아가며 집을 샀다. 그리고 수복이 되자 재빨리 되팔았다. 재산이 열 배도 더 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전부 현금화했다. 변을 놓았다. 회사의 주를 샀다. 다시 회사로 들어왔다. 중역 자리가 필요 없었다. 그는 경리를 꼭 쥐고 앉았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부산 적산집 돌층계 밑에 지계를 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의 그 자세를 허물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 그 자세로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법선, 「냉혈동물」—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초점 인물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㉔에 드러나는 자신의 요구를 상대가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 ② ㉒은 ㉑에 드러난 상대의 요청 배경이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임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③ ㉓은 ㉔에 드러나는 요청을 짐작하고 상대가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말이다.
- ④ ㉔은 ㉔에 드러난 상대의 요청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드러낸 말이다.
- ⑤ ㉔은 ㉔에 드러난 상대의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41. 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헛수고가 되었음을 뜻한다.
- ②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단호하게 중단했음을 뜻한다.
- ③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익숙해져 나태해졌음을 뜻한다.
- ④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었음을 뜻한다.
- 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했음을 뜻한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개인의 삶이 전쟁이라는 외부적 사건을 겪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인물은 본래 타인을 신뢰하였지만 피난 과정에서 각자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비정한 현실을 경험하며 내면의 상처를 입는다. 이후 인물은 과거의 비참한 처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본을 축적하는 데 몰두하며 냉정한 태도를 고수하게 된다.

- ① ‘그’가 ‘훔쳐 나오는 물건’을 ‘도매’로 ‘팔’거나 ‘밀수’를 하는 것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 ‘그’가 ‘김철 귀하’라고 적힌 ‘종이’를 내미는 것을 통해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피가 뽕뽕 열었’다는 ‘별의별 소리’에 대해 ‘그’가 ‘들은 척도 안’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평가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수위 할아버지’가 ‘어제 누군가가 하던 말이 정말이었’다며 ‘고약한 인심들’이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타인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세태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그’가 ‘회사 부산 지점’에 내려가 ‘숙소’를 ‘찾아갔’으나 ‘대문 밖에서 그대로 돌아서’고 ‘눈이 자꾸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통해 비정한 현실로 인해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적 장면은 공간적 배경 안에서 화자가 포착한 시적 대상을 통해 구성되어 화자의 내면을 반영한다. 시적 대상이 놓인 공간적 배경은 화자가 위치한 현재의 장소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속의 장소가 화자의 내면에서 환기된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시적 대상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방향성을 지닌 동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등을 활용한 주관적 변용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 및 정서를 드러낸다.

(나)

오후

하이얀 들가의 외줄기 좁은 길을 찾아 나간다

들길엔 낡은 전신주가

의장병같이 나를 둘러싸고

논둑을 헤매던 한 때의 바람이

어두운 갈대밭을 흔들고 사라져 간다

잔디밭에는

옅은 햇빛이 화분같이 퍼붓고

급게 화장한 술밭 속엔

흘러가는 물소리가 가득하고

여윈 그림자를 바람에 불리며

나 혼자

조락한 풍경에 기대어 섰으면

쥐고 있는 지팡이는 슬픈 피리가 되고

㉠ 급 공작을 수놓은 옛 생각은 켜기도 하다

저녁 안개 고달픈 기폭인 양 내려 덮인

단조로운 외줄기 길가에

양상한 나뭇가지는

희미한 측수를 저어 황혼을 부르고

조각난 나의 감정의

한 개의 슬픈 건판인 푸른 하늘만

멀리 발밑에 누워 희미하게 빛나다

—김광균, 「창백한 산보」—

(다)

팔아버린 지 이태 더 지난 옛집이

요즘 들어 부쩍 꿈속에 들어 앓는다

그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어머니와 다투거나

간밤에는 어린 딸들까지 데리고 가서 복세 놀다가

싫다는 아이들 억지로 채워놓고 혼자 바닷가로 나갔으니

이 나들이는 옛 등지가 외로움을 탈까 봐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아궁이 재를 굽어내고 군불 때고

방방을 쓸고 장독들 닦으며 버거운 세간

들먹여보는 쓰디쓴

고해만은 아닐 것이다

몸을 바친 기억이란 뼈에 새겨져

살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절룩거리는 평상에 걸터앉아

나눌 길 없는 집 한 채와 마주 쳐다보며

서로에게 잔술을 내밀지만

혼자 음미하는 쓸쓸한 뒷맛 같은 것

마침내 뻗속으로 옮겨 앉은 집 허물지 못해

㉡ 나 또한 퇴락을 안고 살아가느니

—김명인, 「낡은 집」—

43.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현재형 어미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독백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다)와 달리 행위의 나열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특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특정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배경을 드러낸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특정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④ ㉠은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를, ㉡은 화자가 특정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은 화자가 특정 상황을 가정하는 모습을, ㉡은 화자가 특정 상황을 회상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저녁 안개’를 ‘기폭인 양 내려 덮인’ 모습으로 변용한 것은, 시적 대상의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고단한 심정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다)에서 ‘꿈속’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기 어려운 과거의 장소인 ‘옛집’을 환기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군.
- ③ (다)에서 ‘집 한 채’와 ‘잔술’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음미하는’ 모습은, 의인화된 대상을 대하며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장면이겠군.
- ④ (나)에서 ‘외줄기 길가’의 ‘희미한 측수를 저어 황혼을 부르’는 ‘양상한 나뭇가지’와, (다)에서 ‘그 먼 곳’의 ‘세간’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구성된 시적 장면이겠군.
- ⑤ (나)에서 ‘푸른 하늘’이 ‘희미하게 빛’난다고 표현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다)에서 ‘나들이’가 ‘쓰디쓴 고해만은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현실의 전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